NH ESG Research

ESG 채권: 다시 시작될 양적, 질적 성장

ESG 채권의 경우 글로벌은 녹색채권, 국내는 사회적채권이 발행 우위. 규제 당국의 규제 정비, SLB 발행 등에 따른 ESG 채권의 양적, 질적 성장 예상. ESG 채권 발행 기업들의 펀더멘털 감안 시 수익률 매력 존재한다는 판단

최성종 (크레딧전략)
02)768-7217, seongjong.choi@nhqv.com

ESG 채권, 글로벌은 녹색채권이, 국내는 사회적채권이 발행 우위

글로벌 ESG 채권은 2021년 이후 1조달러 이상 꾸준하게 발행. 녹색채권 발행이 소폭 감소했지만, ESG 채권 발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 수준. ESG 채권 발행은 전체 채권 발행에서 차지하는 비중 13%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가별로 차별화

국내의 경우 녹색채권 발행 증가로 전체 ESG 채권 발행액 증가. 여전히 사회적채권 발행 비중이 약 85%로 높음. 공사, 은행 등이 사회적채권 인증을 받아 발행해 사회적채권 비중이 높은 편

한국형 녹색채권 지원,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 등 ESG 채권 발행 지속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마련과 더불어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녹색채권 발행 증가에 기여. 2023년에는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발행이 ESG 채권 발행 지속 및 종류 다변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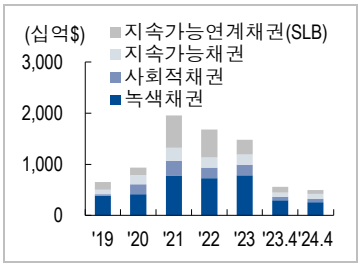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성과목표 달성 실패는 발행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을 확대. 비용 증가 및 성과목표 달성 실패는 모두 지속가능연계채권의 평판을 저하시키는 요인. 단기적으로 목표 달성 실패에도 중장기 방향성이 유효하다면 ESG 채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규제 정비를 통한 질적 성장 유도, 금리 인하 시 채권 가격 상승 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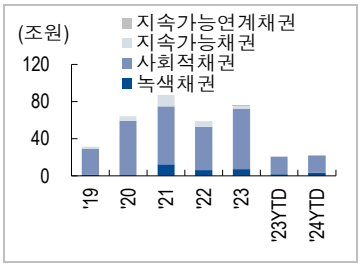
규제 정비를 통해 ESG의 질적 성장을 유도 중. 사전/사후 공시 기준을 강화하고 그린워싱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한 감독 권한을 부여. ESG 관련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되겠으나, 공시 강화 유도는 ESG 채권 투자 리스크를 완화

2022년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으로 ESG 채권의 발행금리도 과거 대비 높아졌음. ESG 채권 발행 주체가 대부분 공공기관이고, 기업들인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상위로 하반기 금리 인하되며 ESG채권 투자도 양호한 성과 거둘 것으로 기대

글로벌 ESG 채권 종류별 발행 추이



국내 ESG 채권 종류별 발행 추이



C/O/N/T/E/N/T/S

I. ESG 채권: 글로벌은 녹색채권, 국내는 사회적채권 발행이 우위 3

II.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6

III. 국내 기업도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발행, ESG 채권 확대에 긍정적 .. 8

IV. ESG 채권 성과 변동성은 큰 편, 국내 발행시장 강세 지속 12

V. 2024년 ESG 채권의 양적, 질적 성장 기대 14

[참고] 국내 ESG 채권 발행 내역 16

I. ESG 채권: 글로벌은 녹색채권, 국내는 사회적채권 발행이 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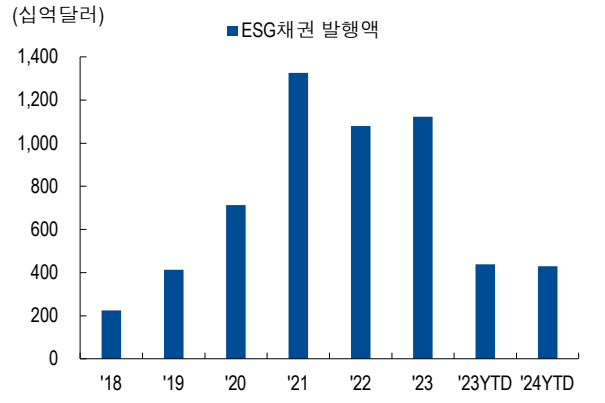
글로벌 ESG 채권 발행은 연간 1조달러 상회

글로벌 ESG 채권은 2021년 이후 1조달러 이상 꾸준하게 발행되고 있다. 2024년에도 4월까지 ESG 채권 발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종류별로 보면 2024년 4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녹색채권(그린본드)과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발행액은 소폭 줄어든 반면, 사회적채권(소셜본드)과 지속가능채권 발행액은 증가했다. 녹색채권 발행이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 ESG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녹색채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중국 발행 감소 vs 일본, 영국 발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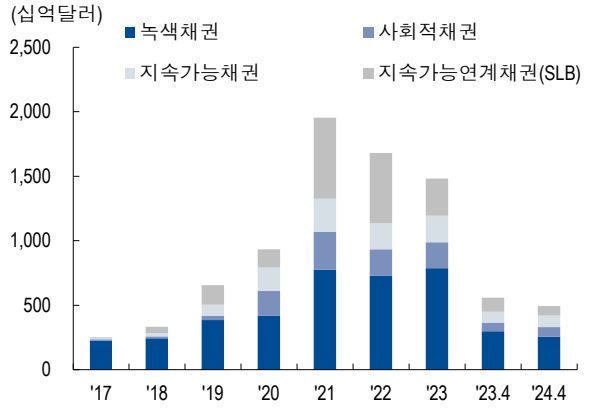
글로벌 채권 발행 중 약 13%를 차지하는 ESG 채권의 2023년 국가별 발행은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미국과 중국은 감소한 반면, 일본과 영국은 증가하고 있다. 2024년에도 발행 추이는 유사하다. 2022년 글로벌 ESG 채권 발행에서 미국과 중국 비중은 각각 16.3%, 12.3%였는데, 2023년에는 각각 13.4%, 9.9%로 하락했다. 2024년 들어 미국과 중국의 발행 비중은 각각 9.0%, 4.5% 수준까지 낮아졌다.

그림1. 글로벌 ESG 채권 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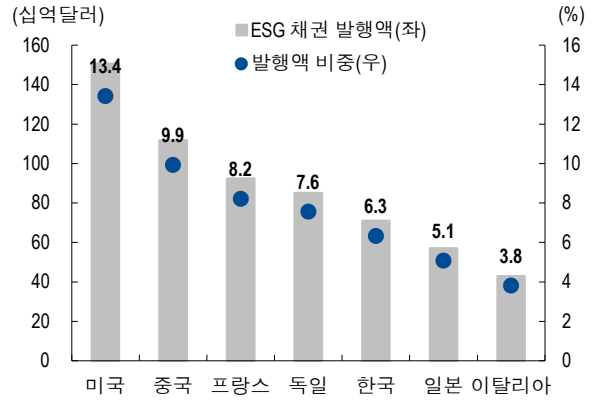
주: YTD는 4월까지 누적 기준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글로벌 ESG 채권 종류별 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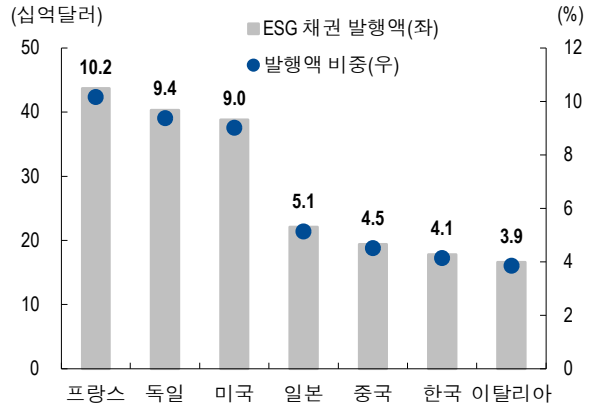
주: YTD는 4월까지 누적 기준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2023년 국가별 ESG 채권 발행 규모 및 비중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2024년 국가별 ESG 채권 발행 규모 및 비중



주: 4월까지 누적 발행 기준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국내 ESG 채권 발행액 증가

2024년 국내 ESG 채권 발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4% 증가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사회적채권과 지속가능채권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녹색채권이 약 90% 증가하며 전체 발행액 증가에 기여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을 제외하면 ESG 채권 발행액은 37.1% 증가했다.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 발행이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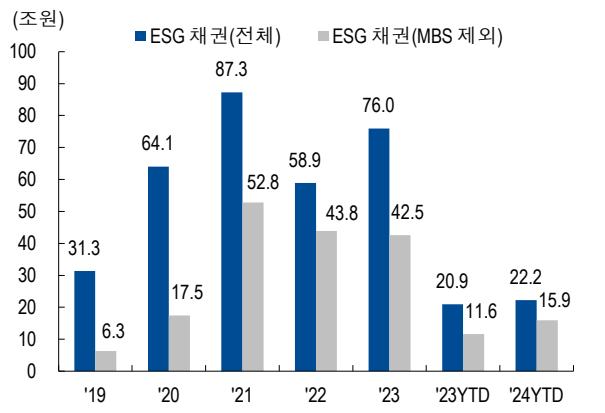
녹색채권 발행 증가에도 사회적채권 비중 높은 수준

녹색채권 발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ESG 채권 발행에서 사회적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4.5%로 녹색채권 비중이 더 높은 글로벌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공기업 등이 발행한 공사채(주택금융공사 MBS, 한국장학재단채, 예금보험공사채, 중소벤처진흥공단채 등)가 사회적채권 인증을 받아 발행해 사회적채권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발행주체별로는 공사채 비중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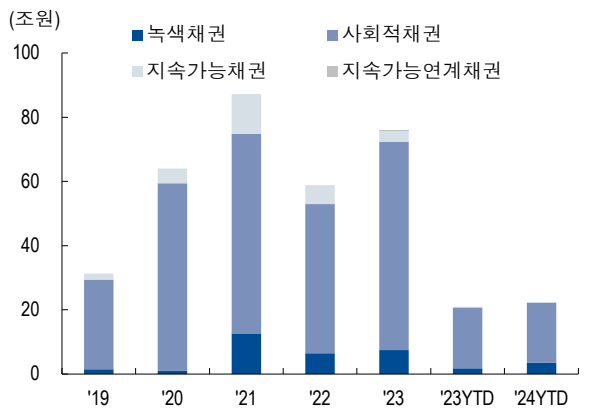
발행주체별로는 공사채 발행 비중이 60%로 높은 편이다. 이어서 은행채와 회사채의 비중이 각각 17.4%, 16.6%이며, 여전채가 5.8% 수준이다. 2023년 연간 발행과 비교하면 공사채 발행 비중은 축소된 반면, 은행채와 회사채 발행 비중은 확대되었다.

그림5. 국내 ESG 채권 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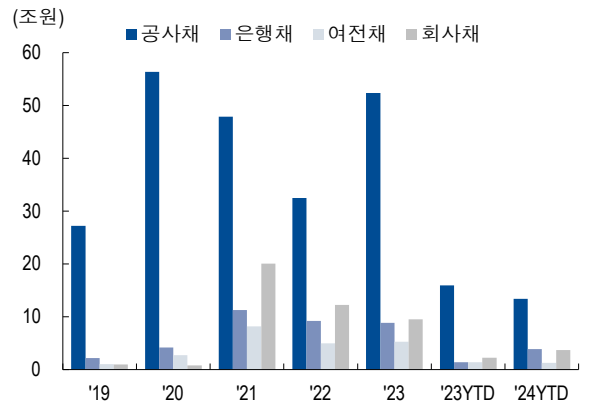
주: YTD는 4월까지 누적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국내 ESG 채권 종류별 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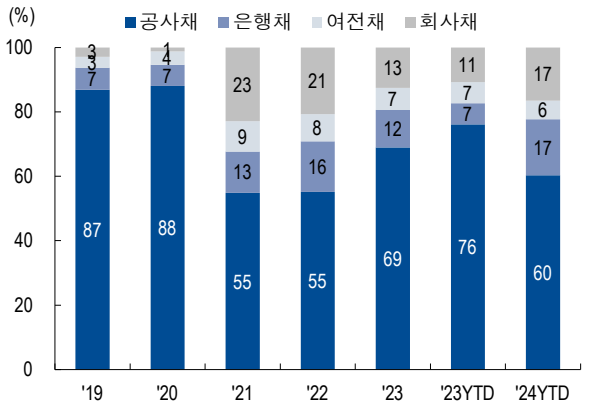
주: YTD는 4월까지 누적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7. 국내 ESG 채권 발행 주체별 발행 추이



주: YTD는 4월까지 누적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8. 2024년에는 국내 ESG 채권 내 공사채 비중 축소



주: YTD는 4월까지 누적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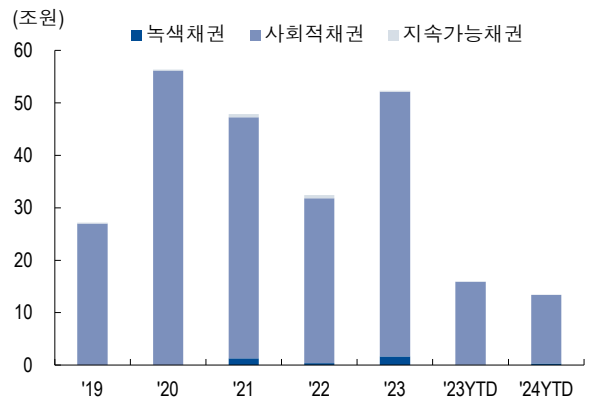
ESG 공사채와 은행채는 대부분 사회적채권 형태

ESG 채권으로 발행되는 공사채의 대부분은 사회적채권 형태이다. 금액 기준 2023년 발행 ESG 공사채의 약 96%가 사회적채권이었으며, 2024년 4월까지 누적 발행 기준으로는 약 98%가 사회적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는 주거복진 증진과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사회적채권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MBS를 제외하더라도 ESG 공사채에서 사회적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95.4%로 높은 수준이다. 2024년 들어 은행이 발행한 ESG 채권도 대부분 사회적채권 형태이다.

ESG 여전채와 ESG 회사채에서 녹색채권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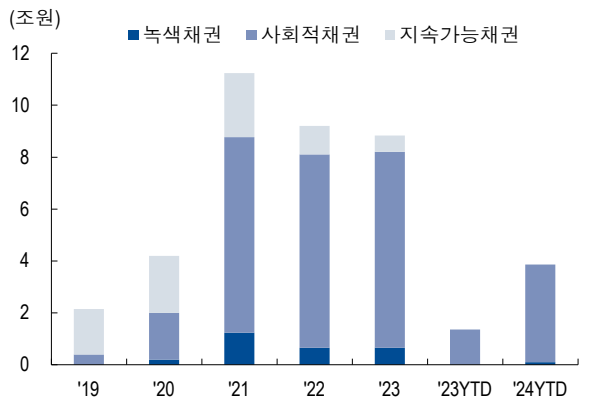
ESG 채권으로 발행되는 여전채와 회사채의 경우 녹색채권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2023년 ESG 여전채 내 녹색채권 비중은 22.1%였는데, 2024년 들어서는 그 비중이 56.3%로 확대되었다. ESG 회사채 내 녹색채권 발행 비중도 2023년 42.0%에서 2024년 현재 64.4%로 확대되었다.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림9. 국내 ESG 공사채 발행 종류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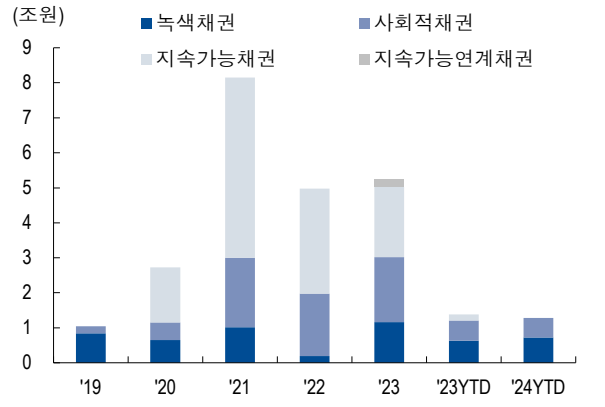
주: YTD는 4월까지 누적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0. 국내 ESG 은행채 발행 종류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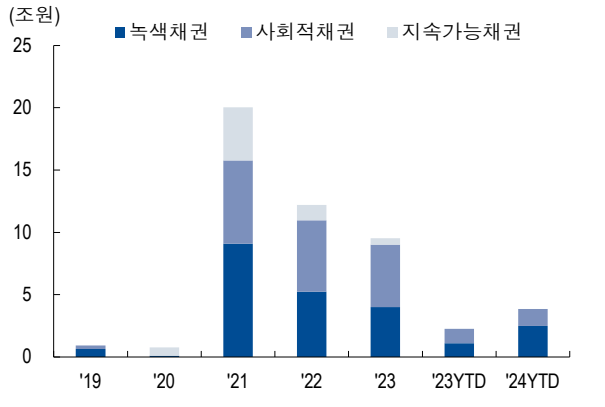
주: YTD는 4월까지 누적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1. 국내 ESG 여전채 발행 종류별 추이



주: YTD는 4월까지 누적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2. 국내 ESG 회사채 발행 종류별 추이



주: YTD는 4월까지 누적 기준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II.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녹색채권 이자보전 지원사업

녹색채권 신뢰성 제고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글로벌 주요국들은 녹색채권에 대한 원칙 및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녹색채권 신뢰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의 녹색채권원칙(GBP, Green Bond Principles), 기후채권이니셔티브(CBI, Climate Bonds Initiative)의 기후채권기준(CBS, Climate Bond Standards), 일본 녹색채권 가이드라인(GBG, Green Bonds Guideline)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도 환경부가 2020년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2022년에는 녹색채권 발행 절차 개선을 통한 발행자 편의성 제고, 적합성판단 절차 신설을 통한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 강화, 사후 외부검토를 의무화하여 그린워싱(Greenwashing)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녹색채권 발행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자보전 지원사업,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기여

환경부가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자보전 지원사업도 녹색채권 발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2024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에는 23개 기업(14개 민간기업, 9개 공기업)이 참여했고 올해 3.9조원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2023년에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25개 기업이 약 4.6조원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올해 추가 공고를 통해 기업들의 추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며, 이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녹색채권 발행절차

구분		주요 내용	핵심 도출
발행 전 보고	1. 발행계획 수립	[발행자] 자금조달 수요 확인, 주관사 선정 및 기업 실사 등 업무 협의, 신용등급 평가	발행계획
	2. 관리체계 수립	[발행자] 관리체계 작성(① 회사 소개 및 녹색채권 개요, ② 관리체계 목적, ③ 자금의 사용, ④ 평가 및 선정 절차, ⑤ 자금의 관리, ⑥ 보고)	관리체계
	3. 적합성판단 요청	[발행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확인 요청	적합성판단 요청서
	4. 사전 외부검토	[외부검토기관] 관리체계 외부검토, 적합성판단 확인	사전 외부검토 보고서 적합성 판단 확인서
발행 후 보고	5. 채권발행	[발행자] 증권신고서 제출(① 관리체계 공시, ② 사전 외부 검토 보고서 공시 (적합성판단 확인서 포함))	증권신고서
	6-1. 사후(연례) 보고	[발행자] 사후(연례) 보고서 공시 (① 자금배분 보고(연1회 이상), ② 환경영향 보고(필요시))	사후(연례) 보고서
	6-2. 사후(최종) 보고	[발행자] 자금배분 완료 후 사후(최종) 보고서 공시 (① 자금 배분 보고, ② 환경영향 보고, ③ 적합성판단 보고)	사후(최종) 보고서
	7. 사후 외부검토	[외부검토기관] 사후(최종)보고서 외부검토 (① 자금배분 검토, ② 환경영향 검토, ③ 적합성판단 최종 확인)	사후 외부검토 보고서

자료: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2022.12, 환경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표2.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원 내용	기업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정한 금리에 따라 지원
지원 대상	2023년도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 완료한 기업
지원 기간	녹색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
지원 한도	참여기업별 지원 한도는 최대 3억원
지원금리	(대기업·공공기관 등) 0.2%, (중소기업·중견기업) 0.4%
신청요건	(대기업·공공기관 등) A등급 이상, (중소기업·중견기업) BBB등급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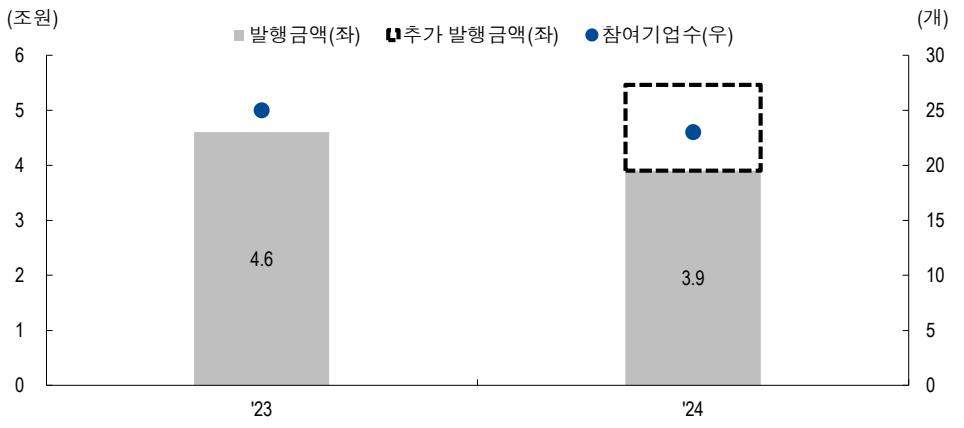
자료: 환경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표3. 2024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 주요 녹색프로젝트

구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국가철도공단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	한국동서발전	액화천연가스(LNG) 혼합 발전
대구은행	수소 연료전지 제조, 육상풍력 사업 등	한국산업은행	폐배터리 재활용, 무공해 자동차 도입 등
부산교통공사	무공해 자동차 도입,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	한국수자원공사	상수도 등 용수공급 시설 구축
삼성카드	무공해 자동차 도입	한국중부발전	양수발전소 건설, 재생에너지 생산(풍력, 태양광)
서울교통공사	무공해 철도차량 도입,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신한은행	이차전지 소재 제조, 저탄소 건축물 건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무공해 선박 연구개발 실증, 무공해 항공기 제조 등
신한카드	무공해 자동차 도입	현대카드	무공해 자동차 도입
우리금융캐피탈	무공해 자동차 도입	현대캐피탈	무공해 자동차 도입
우리은행	재생에너지 생산(태양광, 풍력)	BNK부산은행	폐기물 재활용, 이차전지 소재 제조 등
인천교통공사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	BNK캐피탈	무공해 자동차 도입
포스코퓨처엠	이차전지 소재 제조	SK지오센트릭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비 설치
한국남동발전	액화천연가스(LNG) 혼합 발전		

자료: 환경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3.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상 기업의 ESG 채권 발행 현황



주: 검정색 점선은 전체 예산(76.8억원)을 감안했을 때 추가 발행 가능한 금액을 의미
자료: 환경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III. 국내 기업도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발행, ESG 채권 확대에 긍정적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연계채권 (SLB) 발행

2023년 들어 국내 기업들도 지속가능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s, 이하 SLB)을 발행하고 있다. 1월 SK하이닉스가 10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SLB를 국내 기업 최초로 발행한데 이어, 7월에는 현대캐피탈이 국내 최초로 원화 SLB를 발행했다. SLB는 ESG 채권 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ESG 채권(녹색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채권)은 자금 활용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 SLB는 자금 활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SLB는 발행기업의 친환경 여부나 자금사용에 제한 없음

SLB는 발행기업의 친환경 여부나 자금사용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다양한 기업들이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정략적 환경·사회적 측정치를 정하고 이에 기반한 검증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만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목표 달성 이후 만기까지 남은 기간동안 이자율이 조정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목표 미달성 시 평판위험과 함께 비용 부담까지 높아져 목표 달성 유인을 높여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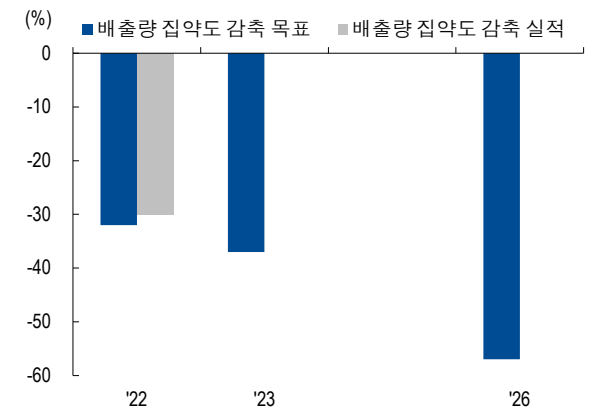
SK 하이닉스 SLB, 2026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SK 하이닉스가 발행한 SLB는 5년 만기로 발행되었으며, 최초 발행금리는 6.375%이다. 해당 SLB는 2026년까지 온실가스 Scope 1(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Scope 2(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스팀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메모리 반도체 용량 단위 당 온실가스 배출량)를 2020년 대비 57% 감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목표 미달 시 가산금리가 0.75%p 추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대캐피탈 SLB, 친환경차 할부금융 비중 확대를 목표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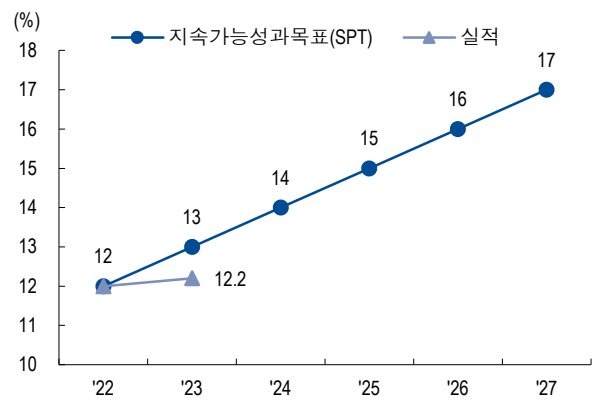
현대캐피탈이 원화로 발행한 SLB는 전체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 건수 대비 친환경차 비중 매년 1%p씩 상향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다. 총 2,200억원 규모로 발행했으며, 만기는 1.5년, 2년, 3년, 5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SLB 상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채권 발행금액의 0.02%를 채권만기에 곱해 산정된 프리미엄을 상환기일에 채권자의 보유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3년 현대캐피탈의 친환경 차량 취급 비중은 12.2%로 목표치인 13%에 미달한 상황이나, SLB에 부여된 인센티브는 2024년 말 기준 실적 이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그림14. SK 하이닉스 SLB, 성과목표(SPT) 및 실적 현황



자료: SK 하이닉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3,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5. 현대캐피탈 SLB, 성과목표(SPT) 및 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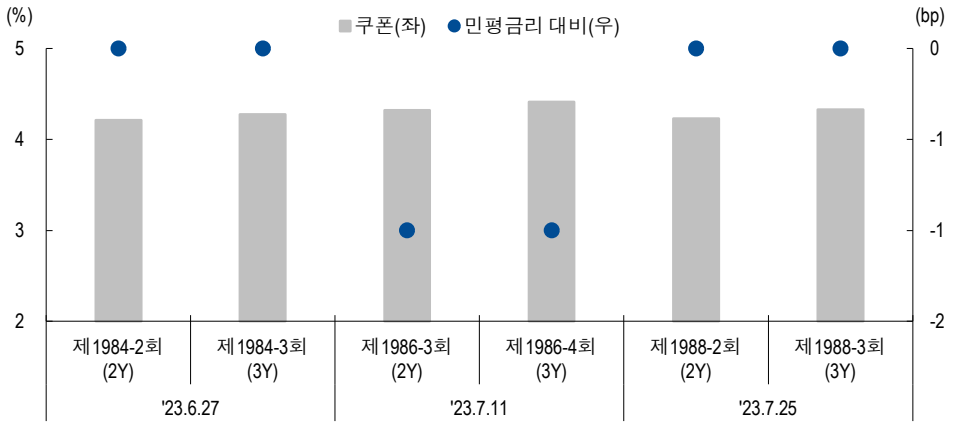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서 사회책임투자채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표4. 현대캐피탈 SLB, 성과목표(SPT) 달성여부에 따른 프리미엄 지급 기준

구분	발행액(억원)	발행일	만기일	성과목표(SPT)	목표 미달시 프리미엄 지급액
1986-1회	100	23-07-11	25-02-10	2024년말 기준 14%	2bp * 1.6Y
1986-2회	700	23-07-11	25-02-11	2024년말 기준 14%	2bp * 1.6Y
1986-3회	700	23-07-11	25-07-11	2024년말 기준 14%	2bp * 2Y
1986-4회	600	23-07-11	26-07-10	2025년말 기준 15%	2bp * 3Y
1986-5회	100	23-07-11	27-07-09	2026년말 기준 16%	2bp * 4Y

주: 성과목표(SPT)는 전체 할부/론 취급 대비 친환경차 할부/론 비중(대수 기준)을 의미
자료: DART,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6. 현대캐피탈은 SLB 발행을 통해 일반채권 대비 1bp 금리 절감 효과 누려



자료: DART,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성과목표 달성 실패는 발행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을 확대

SLB는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금리가 가산(또는 감산)되는 구조로 미달성 시 발행기업에게는 추가적인 이자비용 부담을, 투자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이탈리아 전력회사 에넬(Enel)은 2023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10개(USD 5개, EUR 5개) SLB 금리가 25bp 가산될 예정이다. 금리 가산으로 Enel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2,726만달러 증가하게 되며, 투자자들은 이를 인센티브로 얻게 된다.

SLB 발행기업의 평판 저하 가능성 존재

비용 증가 및 성과목표 달성 실패는 모두 SLB 발행기업의 평판을 저하시켜 ESG 채권 투자 유인을 낮추고 기후 관련 신용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기존 ESG 채권의 리스크 요인인 그린워싱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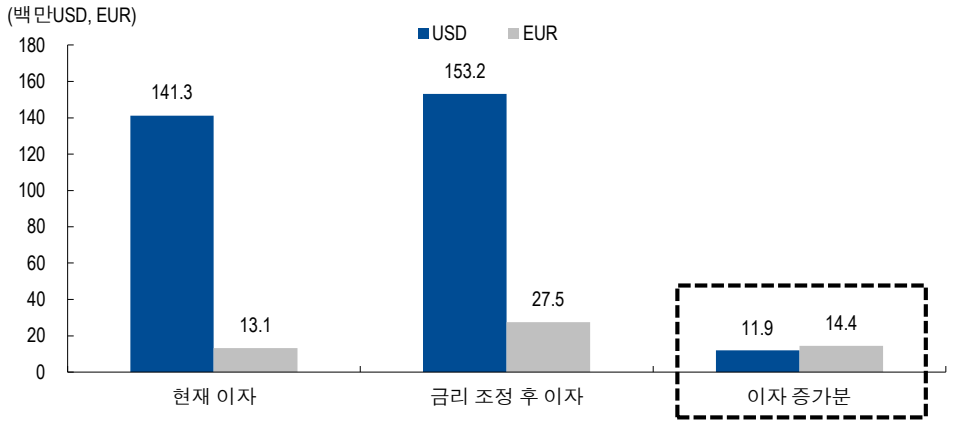
다만, 중장기적인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해당 요인이 ESG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에넬의 경우 2023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전체 감축 경로는 유지되고 있다. 유사한 만기의 지속가능채권과 일반 선순위채권의 경우 움직임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SG 채권 투자 유인이 줄었다면, SLB 가격이 크게 하락했어야 하는데, 지속가능보고서 발표 전 에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보니 가격이 오히려 일반채권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중장기 성과목표 달성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전망이다.

표5. 이탈리아 전력회사 에넬(Enel)의 SLB 중 2023년 온실가스 감축 여부가 성과목표인 채권 리스트

ISIN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백만)	통화	쿠폰(기존 → 변화)
XS2353182020	2021-06-17	2027-06-17	1,000	EUR	0.000% → 0.250%
XS2353182293	2021-06-17	2030-06-17	1,250	EUR	0.500% → 0.750%
US29278GAN88	2021-07-12	2028-07-12	1,000	USD	1.875% → 2.125%
US29278GAP37	2021-07-12	2031-07-12	1,000	USD	2.250% → 2.500%
US29278GAM06	2021-07-12	2026-07-12	1,250	USD	1.375% → 1.625%
XS2390400633	2021-09-28	2026-05-28	1,250	EUR	0.000% → 0.250%
XS2390400716	2021-09-28	2029-05-28	1,000	EUR	0.375% → 0.625%
XS2432293673	2022-01-17	2025-11-17	1,250	EUR	0.250% → 0.500%
US29278GAV05	2022-06-15	2025-06-15	750	USD	4.250% → 4.500%
US29278GAZ19	2022-10-14	2025-10-14	750	USD	6.800% → 7.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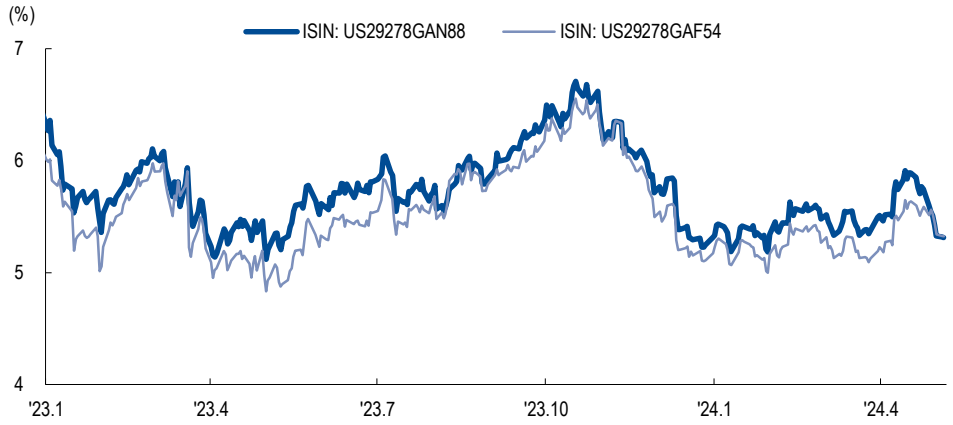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7. 에넬(Enel) SLB 금리 조정 후 이자 증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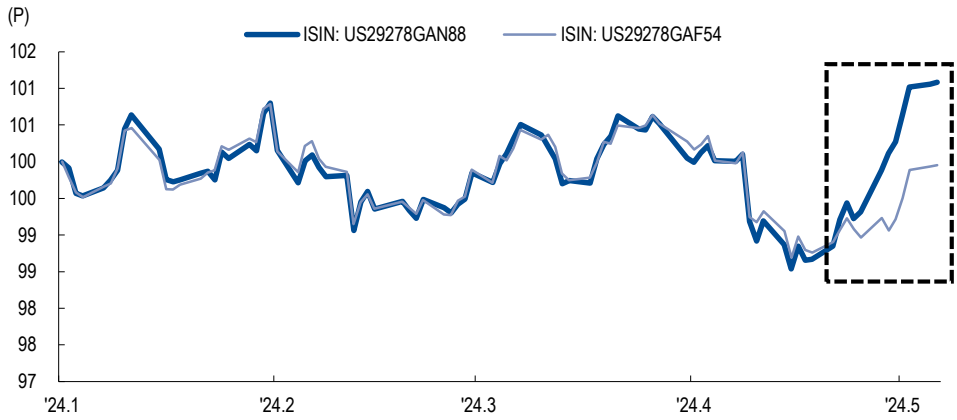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8. 에넬(Enel) SLB vs 일반채권 수익률(YTM) 추이



주1: US29278GAN88은 지속가능연계채권으로 2028년 7월 만기이며, 쿠폰은 1.875%에서 2.125%로 변화 예정
주2: US29278GAF54는 일반 선순위채권으로 2028년 4월 만기이며, 쿠폰은 3.5%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9. 에넬(Enel) SLB vs 일반채권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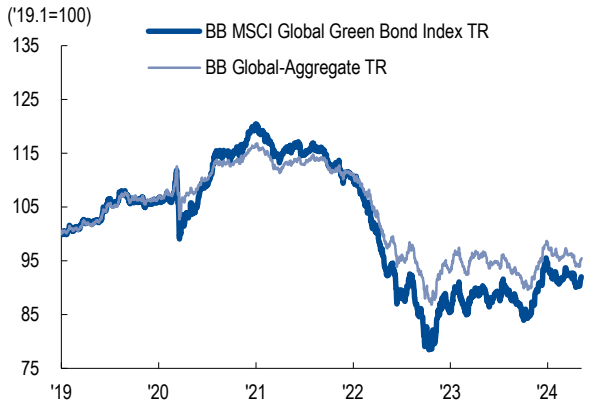
주1: US29278GAN88은 지속가능연계채권으로 2028년 7월 만기이며, 쿠폰은 1.875%에서 2.125%로 변화 예정
주2: US29278GAF54는 일반 선순위채권으로 2028년 4월 만기이며, 쿠폰은 3.5%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IV. ESG 채권 성과 변동성은 큰 편, 국내 발행시장 강세 지속

ESG 채권 투자 성과 변동성 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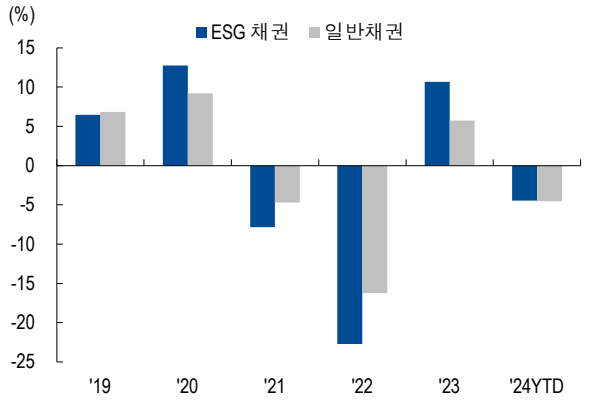
인덱스 기준 ESG 채권 투자 성과는 금리 상승기에 일반채권보다 저조하고, 금리 하락기에는 일반채권을 아웃퍼폼하는 모습이다. ESG 채권의 경우 일반채권 대비 규모가 작고 쿠폰도 낮아 금리 변화가 심할 경우 투자 성과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ESG 채권 인덱스 내 기업 수는 5년 전 347개에서 현재 1,303개로 확대되었고, 발행잔액도 5년전 2,710억달러에서 현재 1.44조달러로 증가했다. 다만, 일반 채권 인덱스 내 기업 수 대비로는 기업 수가 4.4%에 불과하다. ESG 채권의 꾸준한 발행이 이뤄지면서 인덱스 구성 규모가 확대되어야 변동성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20. ESG 채권 및 일반채권 인덱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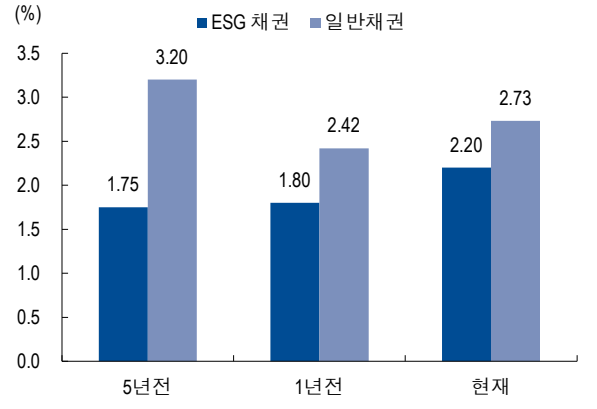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1. ESG 채권 및 일반채권 투자 성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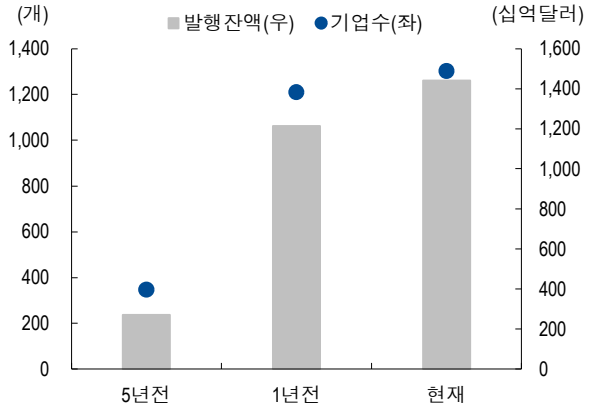
주: '24YTD는 2024년 4월말까지 성과를 의미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2. ESG 채권 및 일반채권 쿠폰 추이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3. ESG 채권 지수 내 구성종목 및 규모 추이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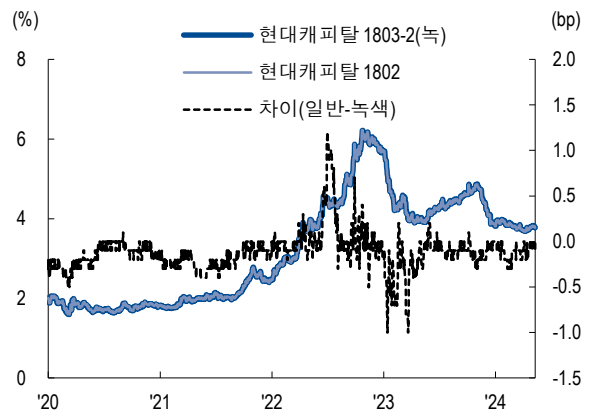
일부 개별 채권에서 ESG 채권 강세 확인

ESG 채권 발행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 채권과 직접적으로 투자 성과를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발행자가 동일하고 잔여 만기 역시 동일해야 하는데,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발행 시기와 만기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면, 현대캐피탈이 발행한 ESG 채권과 일반채권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현대캐피탈이 발행한 ESG 채권 중 녹색채권의 경우 일반채권과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지속가능채권의 경우 수익률이 일반채권 수익률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2022년 하반기에는 지속가능채권과 일반채권의 수익률 격차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금리 상승뿐 아니라 여전채 전반의 신용 스프레드 확대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발행시장 강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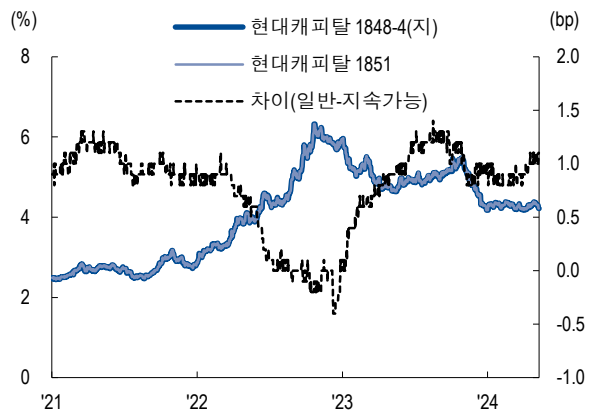
2024년 4월까지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ESG 채권은 민평금리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최종 금리가 결정되는 등 수요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4월까지 ESG 채권 수요예측에서는 모집예정금액 대비 3.6배의 자금을 모집하면서, 일반 회사채(3.8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평균 결정금리의 경우 AA등급 이상에서 ESG 채권이 일반 채권보다 낮게 결정되는 등 선호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24. 현대캐피탈 채권 수익률 비교: 녹색채권 vs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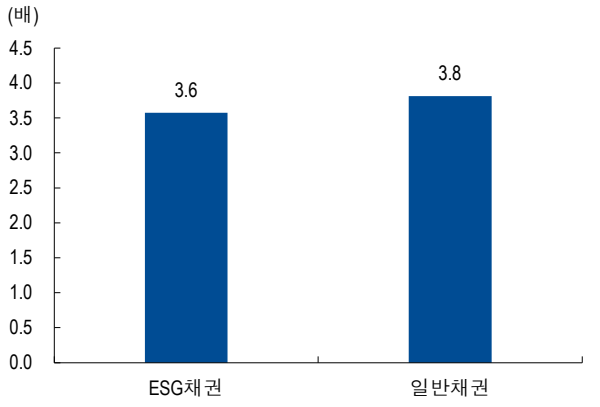
주: 현대캐피탈 1803-2와 1802는 2019년 4월 발행한 7년 만기 채권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5. 현대캐피탈 채권 수익률 비교: 지속가능채권 vs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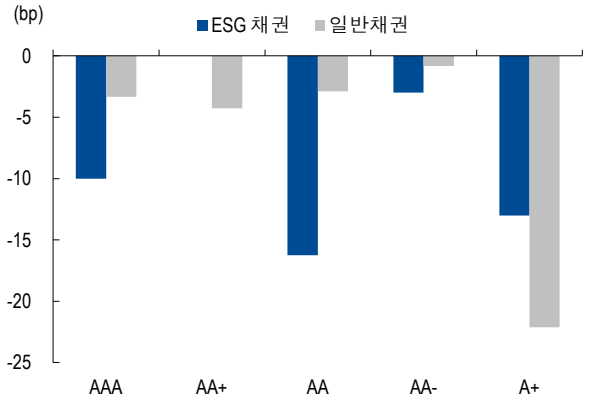
주: 현대캐피탈 1848-4와 1851은 2020년 6월 발행한 10년 만기 채권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6. 2024년 회사채 수요예측 평균 경쟁률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7. 2024년 회사채 발행시장 결정 스프레드 비교



주: 민평금리와의 차이를 의미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V. 2024년 ESG 채권의 양적, 질적 성장이 기대

ESG 채권의 양적 성장 다시 시작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여전히 중요하다. ESG 강화를 위해서 각국은 제도 정비와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ESG의 중요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자금 조달 수단 및 투자 대상으로써 ESG 채권은 중요하다. 인플레이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해진 모습이나, 관련 우려들이 완화되고 있는 만큼 다시 ESG 채권의 양적 성장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SLB 등 다양한 ESG 채권을 통한 접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지원과 규제 정비로 질적으로도 성장

각국 규제 당국은 규제 정비를 통해 ESG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금융규제기관인 유럽증권시장청(ESM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은 그린워싱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감독 권한 등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 및 최종 권고 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통해 유럽 내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들이 환경 및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지난 3월 '기후 공시정보공개규정'을 발표했으며, 기업들은 규정에 따라 SCOPE 1, 2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 밖에 기업들의 기후 리스크와 관련된 재무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 정책당국도 지난 4월 30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기후' 분야부터 공시가 우선적으로 의무화되며 기업들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기준 적용 시기 및 적용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결국 글로벌 및 국내 ESG 공시 제도 강화 추세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ESG 채권을 통해 ESG도 잡고, 금리 인하 효과도 누리고

ESG 채권을 통해 ESG 투자와 함께 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SG 채권 시장을 위축시켰던 요인들이 완화되고 있고, ESG 채권의 수익률도 과거 대비 높아졌기 때문이다. 규제 당국의 공시 강화 추세를 감안할 때 ESG 채권 투자의 리스크 요인인 그린워싱 사례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다만, ESG 관련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전 및 사후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ESG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대부분 공공기관이고, 기업들인 경우에도 상위 신용등급으로 형성되어 있는 바, 국채 금리 하락과 함께 ESG채권 수익률도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6.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 기업 분류별 기후공시 일정

구분	정성 및 정량적 공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및 검증		
	그 외	1502(d)(2) 1502(e)(2) 1504(c)(2)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2)	제한적 검증	합리적 검증
시가총액 7억달러 이상	2025년	2026년	2026년	2029년	2033년
시가총액 7,500만달러 이상, 7억달러 미만	2026년	2027년	2028년	2031년	면제
시가총액 7,500만달러 미만, 기타 소규모 기업 및 신흥성장 기업	2027년	2028년	면제	면제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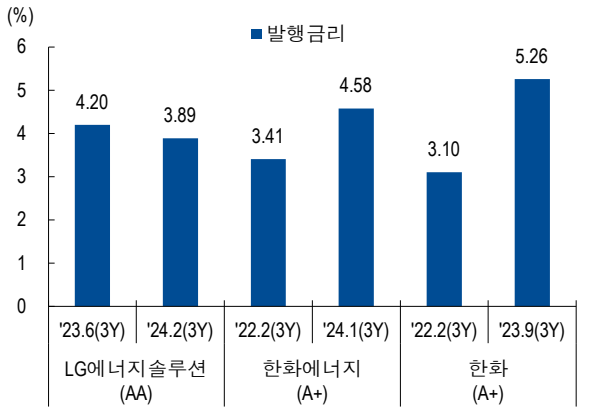
주: 각 연도에 시작하는 기업별 회계연도 정보에 대해 차년도 공시 적용
자료: 법무법인 세종,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표7.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 중 기후 관련 주요 공시사항

구분	주요 내용
거버넌스	- **의사결정기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또는 개인)을 식별하고, 의사결정기구(또는 개인)의 운영 규정에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등 - **경영진의 역할**: 기후와 관련된 경영진의 역할이 특정 직책 또는 위원회에 위임되는지, 위임된다면 그러한 직책 또는 위원회에 관한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전략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설명과, 해당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 **현재 및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당기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보 - 기후 회복력: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기업이 전략 및 사업모형을 조정하거나 적응시킬 수 있는지 그 역량에 관한 정보로, 시나리오 분석 등이 해당
위험관리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프로세스
지표 및 목표	- **산업전반 지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성과를 다른 기업의 성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기업이 공통으로 공시하여야 할 7가지 지표. 온실가스 배출량, 내부 탄소 가격 등이 해당 - **산업기반 지표**: 특정 산업의 사업모형 및 활동과 관련된 지표로, 기업은 공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기후 관련 목표**: 기업이 설정한 기후 관련 목표 혹은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목표를 공시

자료: 법무법인 세종,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8. ESG 회사채 발행금리 비교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9. 국내 기준금리 및 주요 크레딧물 금리 추이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참고] 국내 ESG 채권 발행 내역

표8. 2024년 국내 주요 ESG 채권 발행 내역(1)

종목코드	발행자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백만원)	표면금리 (%)	크레딧	종류
KR356001GE14	한국장학재단	2024-01-04	2029-01-04	50,000	3.590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4401GE15	주택금융공사	2024-01-08	2027-01-08	80,000	3.621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4402GE14	주택금융공사	2024-01-08	2026-01-08	70,000	3.648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4403GE13	주택금융공사	2024-01-15	2026-07-15	110,000	3.570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4413GE11	주택금융공사	2024-01-16	2029-01-16	130,000	3.540	공사채	사회적채권
KR6063623E12	한국서부발전	2024-01-16	2044-01-16	20,000	3.740	회사채	녹색채권
KR6155721E17	한화에너지	2024-01-18	2026-01-16	95,000	4.482	회사채	녹색채권
KR6155722E16	한화에너지	2024-01-18	2027-01-18	55,000	4.578	회사채	녹색채권
KR354414GE10	주택금융공사	2024-01-22	2026-07-22	110,000	3.590	공사채	사회적채권
KR6001681E11	대상	2024-01-25	2026-01-23	20,000	3.829	회사채	사회적채권
KR6063626E19	한국서부발전	2024-01-25	2044-01-25	10,000	3.823	회사채	녹색채권
KR356002GE13	한국장학재단	2024-01-26	2029-01-26	50,000	3.592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4419GE15	주택금융공사	2024-01-30	2027-01-30	100,000	3.596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7901GE13	안산도시공사	2024-01-31	2026-01-31	40,000	3.866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6001GE22	한국장학재단	2024-02-02	2034-02-02	80,000	3.544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4401GE23	주택금융공사	2024-02-05	2026-08-05	150,000	3.500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1601GE2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02-06	2027-02-05	160,000	3.532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1602GE2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02-06	2029-02-06	160,000	3.543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6002GE21	한국장학재단	2024-02-06	2044-02-06	50,000	3.495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4411GE21	주택금융공사	2024-02-14	2026-02-14	130,000	3.558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6003GE20	한국장학재단	2024-02-14	2029-02-14	70,000	3.606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1603GE2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02-15	2027-02-15	140,000	3.598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1604GE2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02-15	2034-02-15	130,000	3.690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6004GE29	한국장학재단	2024-02-15	2026-02-13	60,000	3.534	공사채	사회적채권
KR6373221E29	LG에너지솔루션	2024-02-16	2026-02-16	180,000	3.806	회사채	녹색채권
KR6373222E28	LG에너지솔루션	2024-02-16	2027-02-16	660,000	3.889	회사채	녹색채권
KR6373223E27	LG에너지솔루션	2024-02-16	2029-02-16	570,000	4.054	회사채	녹색채권
KR6373224E26	LG에너지솔루션	2024-02-16	2031-02-16	190,000	4.202	회사채	녹색채권
KR356005GE28	한국장학재단	2024-02-19	2029-02-19	60,000	3.634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1605GE2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02-20	2027-02-19	130,000	3.562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1606GE2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02-20	2029-02-20	110,000	3.607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4416GE26	주택금융공사	2024-02-20	2029-02-20	100,000	3.621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4417GE25	주택금융공사	2024-02-23	2026-02-23	100,000	3.590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6006GE27	한국장학재단	2024-02-26	2029-02-26	50,000	3.650	공사채	사회적채권

주: 주택금융공사 MBS, 신용보증기금 유동화증권은 제외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표9. 2024년 국내 ESG 채권 발행 내역(2)

종목코드	발행자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백만원)	표면금리 (%)	크레딧	종류
KR352501GE26	자산관리공사	2024-02-27	2026-02-27	160,000	3.621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2502GE25	자산관리공사	2024-02-27	2027-02-27	140,000	3.579	공사채	사회적채권
KR6174141E28	우리카드	2024-02-27	2026-02-26	30,000	3.786	여전채	사회적채권
KR6174142E27	우리카드	2024-02-27	2026-02-27	80,000	3.786	여전채	사회적채권
KR6174143E26	우리카드	2024-02-27	2026-08-26	20,000	3.829	여전채	사회적채권
KR6174144E25	우리카드	2024-02-27	2026-08-27	100,000	3.829	여전채	사회적채권
KR6174145E24	우리카드	2024-02-27	2027-02-26	160,000	3.872	여전채	사회적채권
KR6006221E25	제주은행	2024-02-28	9999-12-31	50,000	5.650	은행채	사회적채권
KR6205493E24	하나카드	2024-02-28	2026-02-27	120,000	3.754	여전채	사회적채권
KR6205494E23	하나카드	2024-02-28	2027-02-26	50,000	3.817	여전채	사회적채권
KR354409GE33	주택금융공사	2024-03-07	2026-03-07	140,000	3.550	공사채	사회적채권
KR6404711E37	SK온	2024-03-07	2026-03-06	140,000	4.607	회사채	녹색채권
KR6404712E36	SK온	2024-03-07	2027-03-05	160,000	4.730	회사채	녹색채권
KR351601GE3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03-08	2029-03-08	140,000	3.514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1602GE3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03-08	2034-03-08	160,000	3.613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4410GE30	주택금융공사	2024-03-12	2026-09-12	100,000	3.486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2601GE33	예금보험공사	2024-03-13	2025-03-13	260,000	3.620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6001GE30	한국장학재단	2024-03-13	2029-03-13	50,000	3.492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0901GE34	한국수자원공사	2024-03-15	2027-03-15	150,000	3.504	공사채	녹색채권
KR352501GE34	자산관리공사	2024-03-15	2029-03-15	150,000	3.493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2502GE33	자산관리공사	2024-03-15	2027-03-15	180,000	3.464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6002GE39	한국장학재단	2024-03-18	2029-03-16	90,000	3.528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10501GE32	기업은행	2024-03-19	9999-12-31	400,000	4.100	은행채	사회적채권
KR354419GE31	주택금융공사	2024-03-19	2025-09-19	130,000	3.570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10501AE38	기업은행	2024-03-20	2025-03-20	150,000	3.460	은행채	사회적채권
KR310502GE31	기업은행	2024-03-20	2025-03-20	130,000	3.590	은행채	사회적채권
KR356003GE38	한국장학재단	2024-03-20	2027-03-19	50,000	3.540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2503GE32	자산관리공사	2024-03-21	2027-03-21	170,000	3.530	공사채	사회적채권
KR6065901E36	현대카드	2024-03-21	2026-09-21	50,000	3.928	여전채	녹색채권
KR6065902E35	현대카드	2024-03-21	2027-03-19	70,000	3.931	여전채	녹색채권
KR6065903E34	현대카드	2024-03-21	2029-03-20	20,000	4.157	여전채	녹색채권
KR6065904E33	현대카드	2024-03-21	2029-03-21	210,000	4.157	여전채	녹색채권
KR351603GE3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03-25	2027-03-25	140,000	3.425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1604GE3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03-25	2029-03-23	110,000	3.453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4420GE38	주택금융공사	2024-03-26	2027-03-26	180,000	3.452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10503AE36	기업은행	2024-03-27	2025-03-27	100,000	3.420	은행채	사회적채권

주: 주택금융공사 MBS, 신용보증기금 유동화증권은 제외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표10. 2024년 국내 ESG 채권 발행 내역(3)

종목코드	발행자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백만원)	표면금리 (%)	크레딧	종류
KR351605GE3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03-27	2031-03-27	100,000	3.491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10504AE35	기업은행	2024-03-28	2025-03-28	110,000	3.410	은행채	사회적채권
KR351606GE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03-28	2027-03-26	120,000	3.429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1607GE3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03-28	2029-03-28	90,000	3.430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6004GE37	한국장학재단	2024-03-28	2029-03-28	50,000	3.446	공사채	사회적채권
KR6350522E31	이지스레지던스리츠	2024-03-28	2025-03-28	20,000	6.300	회사채	사회적채권
KR6350523E30	이지스레지던스리츠	2024-03-28	2025-09-28	5,000	6.500	회사채	사회적채권
KR352601GE41	예금보험공사	2024-04-02	2025-04-02	210,000	3.540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4401GE49	주택금융공사	2024-04-02	2026-10-02	160,000	3.406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1601GE4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04-03	2029-04-03	100,000	3.457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10501AE46	기업은행	2024-04-05	2025-04-05	100,000	3.400	은행채	사회적채권
KR351602GE4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04-08	2027-04-08	160,000	3.449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1603GE4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04-08	2029-04-06	80,000	3.466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4402GE48	주택금융공사	2024-04-08	2025-10-08	250,000	3.480	공사채	사회적채권
KR6029881E44	현대캐피탈	2024-04-08	2026-04-08	110,000	3.620	여전채	녹색채권
KR6029882E43	현대캐피탈	2024-04-08	2027-04-08	90,000	3.710	여전채	녹색채권
KR6029883E42	현대캐피탈	2024-04-08	2029-04-04	30,000	3.875	여전채	녹색채권
KR6029884E41	현대캐피탈	2024-04-08	2029-04-05	50,000	3.875	여전채	녹색채권
KR6029885E40	현대캐피탈	2024-04-08	2029-04-06	90,000	3.875	여전채	녹색채권
KR310502AE45	기업은행	2024-04-12	2025-04-12	100,000	3.410	은행채	사회적채권
KR310503AE44	기업은행	2024-04-16	2025-04-16	200,000	3.430	은행채	사회적채권
KR354403GE47	주택금융공사	2024-04-16	2027-04-16	70,000	3.533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10501GE40	기업은행	2024-04-17	2026-04-17	220,000	3.560	은행채	사회적채권
KR310504AE43	기업은행	2024-04-17	2025-04-17	140,000	3.440	은행채	사회적채권
KR310506AE41	기업은행	2024-04-18	2025-04-18	240,000	3.430	은행채	사회적채권
KR6006221E41	제주은행	2024-04-18	2026-04-17	100,000	3.736	은행채	사회적채권
KR310502GE49	기업은행	2024-04-19	2026-04-19	160,000	3.550	은행채	사회적채권
KR310503GE48	기업은행	2024-04-22	2025-04-22	100,000	3.580	은행채	사회적채권
KR310507AE40	기업은행	2024-04-22	2025-04-22	50,000	3.480	은행채	사회적채권
KR310504GE47	기업은행	2024-04-23	2026-04-23	260,000	3.630	은행채	사회적채권
KR310505GE46	기업은행	2024-04-23	2027-04-23	270,000	3.630	은행채	사회적채권
KR354412GE46	주택금융공사	2024-04-23	2026-04-23	100,000	3.646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7601GE40	하남도시공사	2024-04-24	2025-04-24	10,000	3.754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1604GE4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04-25	2029-04-25	30,000	3.677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54413GE45	주택금융공사	2024-04-25	2026-04-24	150,000	3.610	공사채	사회적채권
KR6033782E46	KT&G	2024-04-25	2029-04-25	100,000	3.808	회사채	녹색채권

주: 주택금융공사 MBS, 신용보증기금 유동화증권은 제외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표11. 2024년 국내 ESG 채권 발행 내역(4)

종목코드	발행자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백만원)	표면금리 (%)	크레딧	종류
KR310509AE48	기업은행	2024-04-26	2025-04-26	100,000	3.530	은행채	사회적채권
KR353201GE43	대구도시개발공사	2024-04-26	2029-04-26	20,000	3.915	공사채	지속가능채권
KR354301GE40	인천도시공사	2024-04-26	2027-04-26	150,000	3.859	공사채	사회적채권
KR310506GE45	기업은행	2024-04-29	2025-04-29	350,000	3.640	은행채	사회적채권
KR310510AE45	기업은행	2024-04-29	2025-04-29	400,000	3.550	은행채	사회적채권
KR356101GE47	한국토지주택공사	2024-04-29	2034-04-29	100,000	3.830	공사채	녹색채권
KR6005282E49	부산은행	2024-04-29	9999-12-31	100,000	4.370	은행채	녹색채권
KR310507GE44	기업은행	2024-04-30	2026-04-30	200,000	3.660	은행채	사회적채권
KR356104DE47	한국토지주택공사	2024-04-30	2039-04-30	50,000	4.160	공사채	녹색채권
KR6068171E58	한국동서발전	2024-05-03	2026-04-30	70,000	3.653	회사채	녹색채권
KR6068172E57	한국동서발전	2024-05-03	2027-05-03	70,000	3.709	회사채	녹색채권
KR6068173E56	한국동서발전	2024-05-03	2029-05-03	30,000	3.783	회사채	녹색채권
KR354401GE56	주택금융공사	2024-05-07	2026-11-07	80,000	3.570	공사채	사회적채권

주: 주택금융공사 MBS, 신용보증기금 유동화증권은 제외
자료: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NH ESG Research 발간목록

작성일	종류	작성자	제목
2023.03.21	이슈	김동양,정연승,이민재	[NH ESG Research] ESG Trend 3: ESG 머니플로우, ESG 주요 이슈
2023.04.05	펀드	하재석,김재은,허율	[NH ESG Research] 액티브&패시브 Bi-Weekly - 다시 관심이 높아질 ESG 펀드
2023.05.10	펀드	김재은,하재석	[NH ESG Research] 글로벌 ESG 펀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
2023.07.04	이슈	김동양	[NH ESG Research]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으로 의무공시 대상 확대 2년차
2023.07.06	이슈	김채윤	[NH ESG Research] 일본 주식시장의 Governance Trend 2023
2023.09.21	이슈	김동양,정연승,최영광	[NH ESG Research] ESG Trend 4
2023.10.11	이슈	김동양	[NH ESG Research] PRI in Person 2023
2023.11.01	이슈	김동양	[NH ESG Research] 2023년 KCGS ESG 등급 공표: ESG 등급 상향 평준화 재개
2023.12.14	이슈	김동양	[NH ESG Research] 배당제도 개선, 기업의 선택과 배당주 투자전략
2024.03.06	이슈	김동양	[NH ESG Research] 2024년 정기 주총 Preview: 주주제안 확산과 배당제도 개선 진행
2024.03.21	이슈	김동양,정연승,최영광	[NH ESG Research] ESG Trend 5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 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